



# 財團法人 大韓齒周研究所

## 創立紀念 第1回 産學 學術 심포지움 開催

국민구강보전에 관한 연구를 산·학협동으로 실시하여 국민구강보전 향상시킨다는 취지를 가진 연구소가 창립되었다.

“재단법인 대한치주연구소”(이사장 서울치대 손성희 교수)는 지난 2월 22일 인터콘티넨탈 호텔 2층 오키드룸에서 산업체와 학계의 인사들을 초청하여 창립기념 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이 연구소의 발족을 세상에 알렸다.

인류의 발생과 그기원을 같이하는 충치와 치주염 중 일반인들의 인식이 덜미치는 치주와 관련된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낙후된 산·학 협동체계를 세우며 대학에서 배출되는 전문인력이 보다 안정되고 조화된 연구체제에서 관련된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이 연구소의 초대이사장은 서울치대의 손성희 교수가 맡았다.

손성희이사장은 이날 심포지움의 개회사를 통해 “이 연구소는 몇 몇 특정인의 소유가 아니며 정부가 시도하지 못하는 국민구강보전에 관한 연구를 실제로 실행하며 이를 위한 산·학 협동기관으로서 우리들의 미래를 약속하는 뜻깊은 연구소”라 밝히고 산·학이 협력하여 국민구강보전향상에 기여할것을 요청했다.

한편 심포지움 순서에서는 모두 6연제의 특강이 발표되었으며 자리를 옮겨 만찬을 겸해 행해진 축사와 토론의 순서에서는 서울치대 병원장인 최상묵교수와 대한치주과학회 임학순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특히 최상묵 서울치대병원장은 전국민에 대한 치주질환이환율을 밝히는 문제가 시급함을 제기하고 이를 국가의 의료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할것과 치의학과 관련된 각 기업체들도 안일한자세로 상품판매에만 주력할것이 아니라 제 질병의 치료와 함께 예방



에도 노력하며 관련된 연구활동을 게을리 하지 말것을 촉구했다.

또한 임학순 대한치주과학회 회장은 학회가 창립된지 30주년을 맞는 해에 발맞추어 설립된 대한치주연구소의 출범이 치주질환의 실제피악과 예방적치료에 획기적인 이정표를 수립할것이라고 전망하고 전체 치주과학회원 이름으로 창립을 경하했다.

다음은 이날있은 심포지움의 특강연제와 연자들이다.

- 치주질환의 치태 및 병인론.....한 경 윤
- 치주조직의 재생술.....박 준 봉
- 화학요법제에 의한 치태조절 및 치주치료.....정 종 평
- 기계적 치태조절법에 관여하는 제 요소에 대한 검토.....권 영 혁
-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치약제제의 연구현황.....정 진 형
- 일본 Sunstar회사의 치주질환 관련제제의 개발현황 및 전망.....Nakamura